

제13항. 인용표와 쌍괄호안에서의
부호사용법

1) 인용표나 쌍괄호안의 말이 문장인 경우에는
는 거기에 해당하는 부호를 친다.

례: — 《올해도 거름을 많이 냅시다! 정
당 20t은 문제없습니다.》라고 분
조장은 신이 나서 말한다.

— 우리는 매우 긴장한 투쟁을 하고
있었다. (상반년계획을 4.15전으
로 끝내야 했었다.)

[붙임]

《〈…〉라고》로 끝나는 경우에 《라고》의 뒤에
는 해당하는 부호를 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.

례: 《50t은 문제없습니다.》라고.

《빨리 서둘자요!》라고…

《번개》라고?

2) 인용표나 쌍괄호안의 말이 문장이 아닐 때
에는 아무 부호도 치지 않는다.

례: — 회고록 《세기와 더불어》를 학습한다.

— 학생들(다섯사람)은 노래부르며 마
을앞을 지나갔다.

[붙임]

그러나 인용표나 쌍괄호안의 말이 여러 마디

일 때에는 그것들사이를 구별하는 부호를 친다.

- 례: - 《견주다, 겨누다, 겨루다》는 소리가 비슷하나 뜻이 다른 짝 단어들이다.
- 같이 있던 네사람(작업반장, 분조장, 태식아바이, 성숙)이 달려왔다.

3) 쌍괄호안의 말이 전체 문장의 끝에 있는 경우에는 괄호뒤에 아무 부호도 치지 않는다.

- 례: - 공든 탑이 무너지랴?(속담)
- 눈접방법(그림5)

4) 인용표안에 있는 문장의 끝에서 전체 문장도 끝나는 경우에는 끝맺는 부호를 다음과 같이 친다.

- 례: - 《애, 주의해, 〈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.〉》
- 《속담에도 있지만 (때지 않은 굴뚝에서 연기날가?)》
- 《동무들, 〈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!〉》